고흥군,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행복학교' 개교

폐교 시설 리모델링 체류형 주택·체험장·교육장 등 조성
영농교육 등 안정적 정착 도와…11월 중 2기 교육생 모집

고흥에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귀농귀촌행복학교'가 문을 열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송귀근 군수와 송우섭 군의회 의장, 귀농·귀촌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귀농귀촌행복학교 개교 행사를 가졌다.

군은 지난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귀농·귀촌인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영농교육 등을 담당할 귀농귀촌행복학교 조성을 추진했다.

군은 폐교된 망주초등학교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연면적 702㎡, 2층 규모의 건물에 교육장(1실), 체험장(1실), 체류형 주택시설(6실), 사무실(2실) 등 8억여원을 투입해 최근 귀농귀촌행복학교를 준공했다.

군은 귀농귀촌행복학교 개교에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예비 귀농·귀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제1기 교육생 40명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 했다.

교육생 모집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67명이 지원했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제1기 교육은 귀농·귀촌의 이론, 선도농업인 사례중심 현장체험 등으로 운영됐으며, 교육생에게는 40시간의 귀농교육시간이 인정된다.

제2기 교육은 1기 교육 신청 초과자와 신청자를 추가 모집해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을 위해 귀농귀촌행복학교가 귀농·귀촌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 및 농촌문화체험, 상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지난 19일 옛 망주초등학교에서 송귀근 고흥군수와 송우섭 군의회 의장, 귀농·귀촌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귀농귀촌행복학교 개교 행사가 열렸다. 〈고흥군 제공〉

보성서 개천절 기념 음악회 '아리아의 밤'

내달 2일 채동선실내악단·대전 솔리스트디바 교류 공연

보성군이 개천절을 기념해 채동선음악당에서 '솔리스트디바와 채동선실내악단이 함께하는 아리아의 밤' 공연을 개최한다.〈포스터〉

이번 공연은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대전솔리스트디바와 채동선실내악단의 교류음악회 형식으로 실시된다.

다음 달 2일에는 보성 채동선음악당에서 '개천절 기념 음악회'를 선보이고 11일에는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신보성춘향가'를 공연한다.

대전솔리스트디바는 2004년 6월에 창단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성악 전문예술단체로 대중에게 고품격의 음악을 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오페라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호 채동선실내악단장은 "지역 외 예술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면서 "2020년 세계민족음악문화축제가 보성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판소리와 민족음악의 성지이자 의향 보성을 알리고 채동선 음악당을 민족음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남도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개천절의 창시자 홍암 나철의 고향에서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이 작곡한 개천절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정통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하며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우주항공 과학문화 활성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고흥교육지원청 협약 체결

고흥군이 지난 23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Young Astronauts Korea·총재 서상기),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과 우주항공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 과학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과학문화의 저변확대,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경진대회 준비, 우주청소년단 전남지역본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경진대회와 지역예선, 전남지역본부 설립·운영 지원, 우주청소년단 주관 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로 고흥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지역 학생들이 우주항공 과학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구례군, 문화재청 공모 선정…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추진

구례군이 최근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구례군에서 선정된 사업의 유형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 문화재 학당'으로, 사업명은 '천 줄기 눈물로 마지막 시를 쓰다 : 매천 황현 만나기'다.

사업 대상은 11세 이상 청소년이며 ▲매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선(時選) 집중, 매천 황현 ▲토크 콘서트 등의 세부적인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히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에 그쳤던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강의와 체험, 답사 등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국내 토란 최대 주산지 곡성군 '토란은 맛있다' 디저트 팜파티 개최

토란 가공식품 토란파이·토란만쥬 등 선봬

곡성군이 28일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 중앙무대에서 토란 디저트 팜파티를 개최한다.

곡성은 국내 토란의 최대 주산지로, 지난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인증서를 받았다.

'토란은 맛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팜파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팜파티를 통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고, 농가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팜파티는 토란파이 가공농가인 가랑드, 곡성다움, 자매 등 3곳이 참여한다. 그동안 토란파이를 이용했던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0여명을 초대하고, 행사 당일 기차마을을 찾은 관광객 중 선착순 50명을 모집해 팜파티를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토란파이를 중심으로 토란만쥬, 토란유과, 토란쿠키 등 토란을 활용한 가공품을 시식·구매할 수 있다.

또 버스킹 공연과 함께 참가자들이 토란으로 자신을 표현해보는 두들링 포토월 등 고객 참여존도 운영된다.

특히 초청 받은 고객들에게는 기차마을 무료입장 혜택이 부여되며, 토란가공품 종합선물세트도 증정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토란파이 등 토란을 활용한 각종 가공품.

"곡성의 아름다움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11월 20일까지 접수

곡성군은 '2019 곡성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맑고 깨끗한 섬진강과 기차마을, 장미공원 등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2년마다 관광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있다.〈포스터〉

이번 공모전에서는 주요 관광지, 사찰, 문화재, 자연경관, 축제 등 곡성군의 흥과 아름다움을 담은 미발표 사진 작품을 모집한다.

심사는 군의 관광적 요소가 얼마나 잘 담겨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선정된 작품은 관광홍보용으로 활용된다.

접수기간은 11월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출품료는 2만원이며 금상 작품은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